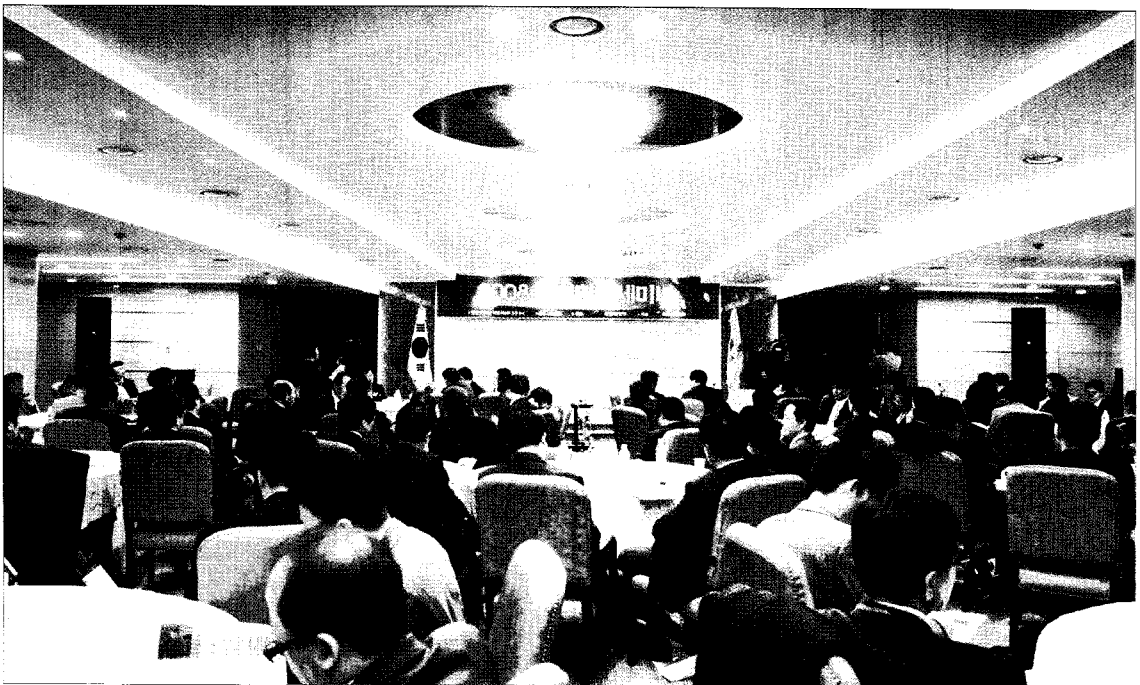


## 2008 하천환경세미나 개최

국도해양부가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2008 하천환경세미나』가 2008. 12. 2(화) 오후 2시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협회가 법정단체로 새롭게 도약한 의미 있는 한해인 2008년을 마무리하며, 네 번째로 맞이한 이번 세미나에는 회원(사) 및 하천담당 공직자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함께 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8 하천환경세미나

협회 김국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국민이 사랑하는 하천문화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방안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하천협회가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련 사업 등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비롯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하천, 하천환경보전 및 복원, 쾌적한 수변문화 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나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토해양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은 축사에서 “짧은 기간, 고도의 성장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지만 하천의 역할에 대해 홍수예방과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것만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고품격 하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 주제발표는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이종구 사무관의 「정부정책발표 - 미래의 하천환경 정책방향」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정연중 환경녹지국장의 「지자체정책시행사례-하천마스터플랜 및 하천관리 선진화 방안」, 상명대학교 구본학 교수의 「하천과 지형 - 한국의 습지유형분류 체계 및 국가 습지목록 구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선임연구원의 「하도습지와 생태 서식 기능」, 한국고대사연구소 오순제 소장(협회 역사문화특별위 부위원장)의 「하천의 역사와 문화 - 역사와 문화유적을 통해 본 하천의 중요성 고찰」 등의 다양한 세부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본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제4회 하천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으로 선정된 「남천의 여름 - 권혁문 님」에게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금상을 포함한 입상작에 대하여 협회장상을 수여하는 등 총 29점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사진전시회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정책의 청사진으로서 하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우리협회가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전국의 하천에 대한 사진전시회가 함께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특히 금년에는 본 세미나와 동시에 평소 협회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단」을 모시고 『미래 하천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소리모음』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가 함께 진행되어, 협회와 하천분야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7년 출범한 <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단>은 수자원, 역사문화, 민간협력 및 정책분야 등 각계의 전문가 총 92명으로 구성되어, 협회의 각종 사업추진시 관련 분야의 자문을 통하여 전문성과 공익성을 더욱 공고히 제고하고 있다.

이번 『2008 하천환경세미나』는 하천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미래 방향을 논의함은 물론 하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및 경험을 폭넓게 교환함으로써, 하천분야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 및 종사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하천분야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유익한 정보교환으로 하천환경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행사가 되었다.

우리협회는 이번 세미나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회원(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뜻을 깊이 새겨 앞으로 더욱더 하천에 대한 사랑과 열의를 담아 새로운 하천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